**무선 인공지능**

정보컴퓨터공학과 201924412 구태헌

이글은 요즘사회에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떻게까지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글은 포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AI는 현재 외부 서버와의 연결에 의존해 '헤비 컴퓨팅'을 하고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연구원들은 이 대체 접근법을 사용해 전류가 장치를 통과하는 방식을 수정했다.”[[1]](#footnote-0)와 같이 단어에 대한 설명없이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만 적혀 있어, 이해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글은 UCF 연구원들이 개발 중인 혁신적인 뇌 모방 장치를 통해 비 연결형 인공지능을 탐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장치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어디서든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 기술은 뉴로모픽 컴퓨팅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개발을 나타내며, 로봇 시스템, 노인 건강 모니터링, 우주 탐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가지의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글의 초반부분을 보면 뇌와 같은 인공지능 장치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실제로 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뇌와 같은 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이유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것 같다.

둘째, 비전문가들을 위한 설명이 부족하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개념을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기사에는 언급되었지만 뉴로모픽 컴퓨팅과 관련된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저나, 혁신적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왜 혁신적인 기술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거 같다.

마지막으로 인용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글에서는 연구의 주요 저자인 UCF 나노과학 기술 센터와 재료과학공학과 부교수인 제이안 토마스(Jayan Thomas),UCF 연구원들, MarkTechPost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구를 가져와 사용했다. 하지만 인용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예시도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견해만 나와 있을 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기사나 뉴스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질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나 시청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사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있어 직접 찾아서 보거나, 좋은 교훈 및 영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위의 단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위 단점들을 보완하면 독자들이 더 쉽게 정보들을 획득하고,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1. 조행만 객원 기자,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 AI TIMES, 2022.04.19, URL: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08> [↑](#footnote-ref-0)